

SK, 생명과학이 캐시카우 “부상”

2009년 매출 410억원 기록 ... GMP 중간체 생산시설 하반기 완공

SK의 생명과학(Life Science) 사업이 캐시카우(현금창출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월15일 SK그룹에 따르면, 지주회사인 SK는 자회사로부터 얻는 배당금 외에 생명과학 사업을 통해 2009년 매출 410억원, 영업이익 7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7%와 75%가 증가했다.

SK의 생명과학 사업은 의약품 중간체를 중심으로 2007년 매출 260억원에 영업이익 10억원, 2008년 매출 260억원에 영업이익 40억원을 기록했다.

SK는 1996년 생명과학 부문 육성을 목표로 의약품중간체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생명과학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2000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의약품중간체 매출은 사업 초기인 2000년 280만달러에 불과했지만 2005년 1980만달러, 2006년 2310만달러로 성장했으며 2007년 처음으로 적자에서 벗어났다.

AIDS 치료제 중간체, 심혈관치료제 중간체 등 40여종에 달하며 90% 이상을 화이자 등 세계 10대 제약기업에 판매하고 있다.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최종 의약품 생산에 주력하기로 하고 우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중간체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2010년 하반기 대전 공장에 완공하기로 했다.

SK 관계자는 “저부가가치의 의약품중간체에서 고부가가치의 의약품중간체 생산체제로 전환하면서 2009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16>